

8 기획

실용성 높은 ‘공간 규정’ 올해 공개 예정 유휴 공간 공용 공간화 사업도 기대

박상희 기자 smtg7475@khu.ac.kr
김동희 기자 kdh0626@khu.ac.kr

#우리학교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교내 공간 관리를 위한 장치로서 공간 관리규정 개정에 집중하고 있다. (관련기사: 우리학교 평균 강의실 활용률 54.5% ‘공유개념’ 강조하는 규정 개선 주목 / 대학주보 제1707호) 이에 우리학교 행·재정 부총장실, 총무관리처 관리팀 등은 올해 안으로 공간관리규정과 시행세칙을 마련할 계획이다. 더불어 교내 유휴공간을 공용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간 부족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신문은 학내 공간 관리 문제의 개선을 위한 움직임을 살펴봤다.

‘공간관리규정’ 제정, 올해 안으로 마무리

우리학교의 공간 관리와 관련된 규정은 ‘공간관리위원회 규정’으로 ‘공간관리위원회’의 ▲명칭 ▲목적 ▲구성 ▲임기 ▲주관부서 ▲기능 ▲회의를 정의하고 있다. 이 외에도 ▲공간관리소위원회 ▲공간관리의 기본원칙 ▲공간 배정 및 운영 ▲공간의 반납 및 기간 연장 ▲운영세칙이 명시돼 있다. 다만 대부분의 내용이 ‘공간관리위원회’의 내부 운영과 관련돼 구체적인 교내 공간 관리와 대어 방식을 알기엔 부족하다는 평이다.

이에 총무관리처 관리팀은 행·재정 부총장실, 기획조정처, 대외협력처 등과 협력해 새로운 ‘공간관리규정’을 신설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기존 규정의 한계로 언급됐던 교내 공간 유형에 따른 특수성 반영 부족을 극복하고, 가능한 모든 구성원에게 공정한 공간 원칙과 기준을 적용하기 위함이다. 새로운 규정에는 기존의 공간관리위원회 규정을 포함해 공간의 관리 주체와 사용 주체를 명확히 하는 세부 내용과 공간 개정, 사용 기준 등이 추가된다. 또한 교원 별 공간 배정 및 사용 규칙과 학과별 공간 배정 및 사용 원칙 등을 명확히 하는 ‘공간관리 시행세칙’도 추가될 예정이다.

현재 대부분의 공간관리규정과 시행세칙 내용이 갖춰졌으나 검증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



경영대학 3층 열람실은 이용 대상이 경영대학 소속 학부생과 대학원생으로 제한돼 있다.(사진1), 현재 공실인 정경대학 409호는 학생 공용 미디어 공간으로 개편될 예정이다.(사진2)

졌다. 이와 관련해 관리팀은 “규정의 기본적인 틀과 세칙은 거의 완료된 상태”라며 “공간관리위원회 논의나 구성원의 의견 수렴 절차가 남아있어 최대한 올해 12월 안에 마무리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규정 공포 후에도 변칙적으로 발생 가능한 실 사례들에 대응하는 세부 내용 수정이나 추가도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공용공간 확장하는 효율화 사업도

공용 공간을 늘리기 위해 관리팀은 ‘공간 효율화 사업’을 진행하기

도 했다. 건물 내 유휴 공간을 학생들의 휴게 및 자습 공간으로 개·보수해 공간 활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이에 ▲경영대학 ▲정경대학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호텔관광대학 ▲후마니타스칼리지(서울)가 해당 사업에 선정됐다.

경영대학이 사용하는 오비스홀 3층 로비엔 학생 편의·휴게시설이 새로 설치될 예정이다. 정경대학은 401호와 401-1호를 개방형 열람과 토론의 공간으로, 407호와 409호는 공용미디어 공간으로 만들어진다. 의과대학은 ▲115호 ▲115-1~4호

▲114-2호를 라운지화해 공용 공간화 한다는 계획이다. 치의학관 지하 4층 중앙 로비에는 학생 휴게공간이, 한의과대학에는 ▲지하 2층 휴게공간 ▲지하 2층 동아리실 ▲4층 편의시설이 새로 선보일 전망이다. 호텔관광대학은 1층 로비와 407호를 편의·휴게시설로 개편할 예정이며 후마니타스칼리지(서울)의 청운관 2~7층 복도에는 테이블과 의자 설치를 통해 휴게 및 자습 공간을 확보할 예정이다.

관리팀은 다가오는 동계방학까지 효율화 사업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있다. 해당 사업의 예산

배정은 모두 완료된 상태이며 현재는 청운관의 2~7층 복도 자습 공간 확보가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관리팀은 “청운관 2층에서 7층 복도에 의자와 책상을 놓고 편하게 쉴 수 있게끔 하고 있다”며 “아마 개강하면 설치가 돼 있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또한 해당 사업으로 조성된 공간은 소속 대학 학생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내 모든 구성원이 공유해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관리팀은 “특정 단과대학 건물을 해당 단과대 소속 학생들만 써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며 “쉽지는 않겠지만 공간관리규정이 이러한 인식을 바꾸가기 위한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규정’ 만병통치약 될 순 없어, 구성원 인식 변화도 병행돼야

공간관리규정과 공유 공간 신설 등은 교내 공간 부족 현상을 극복하는 노력으로 의미를 둘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까지는 될 수 없다. 규정에서 정의하는 공유공간이 구성원의 인식 속에서까지 공유공간이 되지 못한다면 이는 형식상으로 공유된 공간일 뿐이다. 본인이 소속된 단과대가 아닌 타 단과대 건물 사용을 꺼리는 학생들의 인식 역시 자유로운 교내 공간 활용을 어렵게 하는 장벽이다. 정경대에 재학 중인 J 씨는 “정경대 이외 단과대 건물에 가면 아는 사람이 전혀 없어서 불편하고 위화감을 느꼈다”며 “건물도 어디가 어딘지 잘 알 수 없어서 어렵고 불편했다”고 말했다. 정경대 소속 임주는 씨(미디어학 2021) 또한 “다른 단과대에 굳이 가고 싶진 않고, 위화감을 포함해 그 단과대 학생들의 자리를 빼앗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며 비슷한 입장을 보였다.

한정된 공간을 모두가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학교 차원의 노력뿐만 아니라 공간 공유에 대한 구성원들의 협조와 양보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관리팀은 “학생들이 요구하는 대로 공간을 무한정 만들어 낼 수 없기 때문에 공간을 공유해서 써야만 문제가 어느정도 해결이 될 것 같다”며 “구성원의 인식도 옛날보다는 서서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인식 전환을 당부했다. 행·재정 부총장실 역시 “구성원들이 공간을 함께 사용한다는 인식을 유도하기 위해 본부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